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한국사 영역 분석

1. 출제 경향

* 출제 경향 특징

1. 전근대 부분에서 10문항, 근현대 부분에서 10문항 등 단원·시대별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되었다.
2.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적 흐름을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능 필수 절대평가 체제를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3. 지문이 짧고 답지가 간결하게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소재는 8종 한국사 교과서에 공통으로 수록된 내용이 활용되었다.
4. EBS 교재와의 전체적인 체감 연계율은 높은 편이나 자료 등 직접적인 연계 비율은 다소 낮게 출제되었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사 과목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고, 2017학년도 수능 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번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한국사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역사 개념과 시대적인 흐름만 이해해도 충분히 3등급(50점 만점에서 30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항의 시대별 구성을 살펴보면, **전근대 부분(선사 시대~조선 후기)에서 10문항(50%), 근현대 부분에서 10문항(50%)**이 출제되는 등 단원·시대별로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핵심 개념의 이해를 묻는 문항이 많아 시대별 개념 정리가 잘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6월 모의평가 한국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합답형 문항과 부정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자료 및 답지의 구성이 짧고 간결하게 구성되는 등 까다롭지 않게 출제되었다. 이는 절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쉬운 수능 필수 한국사를 지향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방침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 서민 문화를 소재로 하여 당시 회화의 경향에 대한 역사 지식의 이해, 삼국 통일 전쟁 과정의 연대기적 파악,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상황 및 쟁점 인식, 독도의 역사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주제의 설계 능력, 조선 시대 중인 계층에 관한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일제 강점기 형평 운동의 주장을 추론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을 출제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사 영역의 6가지 평가 요소(역사 지식의 이해, 연대기적 사고, 역사 상황 및 쟁점의 인식, 역사 탐구의 설계 및 수행, 역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역사적 상상 및 판단)가 골고루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EBS 교재와의 연계는 20문항 중 14문항으로 70%인데, 이는 다른 과목과 비슷하며 개념 원리 활용, 자료 상황 활용,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등의 형태로 출제되었다. 특히 자료 상황 활용의 경우 자료를 약간만 수정하여 활용한 문항(1번, 2번, 7번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들 문항들은 학생들의 체감 연계율이 꽤 높을 것으로 보인다.

2. 난이도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17학년도 수능과의 시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교	2017학년도 수능 비교
한국사	어려움	쉬움

이번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사 과목은 작년에 치러진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보다는 어렵게 출제되었고, 2017학년도 수능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 그러나 6월 모의평가의 경우 수험생의 학습 정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답률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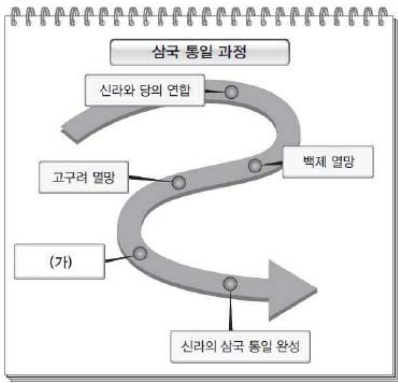
한편,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이번 6월 모의평가 한국사에 서 몇 문항은 고난도로 출제되었는데, **8번·12번**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 **8번** - 8번 문항은 자료를 통해 조선 성종을 파악하고, 답지에서 성종을 고르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자료에서 ‘홍문관’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에게 힌트가 될 만한 용어가 없고, 답지도 5개 중에서 4개가 조선 시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답률이 꽤 낮을 것으로 보인다.
- **12번** - 12번 문항은 자료에서 정조의 통공 정책(신해통공)을 찾고, 이 정책이 시행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자료에 제시된 사료가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며, 연표에 제시된 사건이 정조 시기를 찾기는 데 어렵게 구성되었다.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분석

문항 번호	연계유형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문항번호 (내용요소)
1	자료 상황 활용	수능특강 한국사	12	2(지문)
2	자료 상황 활용	수능완성 한국사	21	7(지문, 답지)
3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한국사	38	3(지문)
5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완성 한국사	49	자료플러스
6	자료 상황 활용	수능특강 한국사	27	개념정리 내용 (지도)
7	자료 상황 활용	수능특강 한국사	66	2(지문, 답지)
10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한국사	94	개념정리 내용
12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한국사	89	6(지문)
13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한국사	129	4(지문)
14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한국사	133	자료플러스
15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완성 한국사	161	1(지문)
16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한국사	106	개념정리 내용
17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한국사	152	1(지문)
19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한국사	178	2(지문, 답지)

4. 대표 연계 문항

6월 모의평가 문항 2번	EBS 수능특강 한국사 21쪽 7번
<p>2. (가)에 들어갈 장면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p>① 대조영, 발해를 건국하다 ② 미천왕, 낙랑군을 몰아내다 ③ 진흥왕, 한강 유역을 차지하다 ④ 김춘추, 나·당 동맹을 성사시키다 ⑤ 광개토 대왕, 신라를 도와 왜병을 격퇴하다</p>	<p>0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p>  <p>① 발해 건국 ② 매소성 전투 ③ 22담로 설치 ④ 금관가야 멸망 ⑤ 삼별초의 대몽 항쟁</p>

5. 2018학년도 수능 마무리 학습 전략

2018학년도 평가원 시행 6월 모의평가가 끝났다. 수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평가원 시행 모의평가를 정리해 보면 올 해 수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1) 한국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라.

교과서 학습이 가장 기본적이 학습 전략이다. 2017학년도 6·9월 모의평가, 수능은 물론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도 한국사는 8종의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출제되었다. 즉, 특정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출제할 경우 수험생 간 유불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년에도 공통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인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시대별로 내용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때 8종 교과서의 공통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된 EBS 수능 교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충실히 학습하라.

다른 과목과 달리 한국사 과목은 수능 시험에 연계되는 교재가 ‘EBS 수능특강 한국사’ 1권 뿐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능 시험에 대비해 교재 안에 있는 내용 정리, 자료플러스, 대표 유형 확인하기, 수능 유형 익히기, 수능 유형 마스터 등 각 요소별로 정리하고, 정리할 때 지문과 답지 또한 꼼꼼히 시대별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출 문항이나 다른 참고서에서 보지 못했던 참신한 자료나 문항 유형은 재 출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3) 쉬운 절대평가 수능에 따라 출제된 기출문항을 정리하라.

작년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항, 평가원이 출제한 6·9월 모의평가 및 수능 문항, 금년에 출제된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항, 평가원이 출제한 기출 문항 등을 꼼꼼

하게 학습해야 한다. 이는 금년도 7·10월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9월 모의평가는 물론 수능 시험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 특히 기출 문항을 학습할 때는 오답의 내용을 시대별로 확인하면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